밤거리 수놓은 '천진불 미소' 연등회

2019연등회, 40만 시민과 세계문화축제로 발돋움

5월 4~5일 종로 일대 펼쳐져
10만 연등 장엄함 시내 가득
어린이 · 청소년 예년보다 증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작품도



불기2563년 연등회가 5월 4일 서울 종로일대에서 펼쳐졌다. 맑은 날씨 속에 40만 인파가 몰려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봉축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특별취재팀

불기2563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22호 연등회가 서울 종로 일대를 환하게 밝혔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참가해 장엄등 불빛 아래 순수한 미소가 가득 퍼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4~5일 전국 각지에서 불기2563(2019)년 연등회를 거행했다. 중앙행사가 펼쳐진 서울지역은 4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올해 연등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지난 1년간 부처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봉축율동을 연습한 1000여 명의 연희단원들은 연등법회에 앞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어린이 · 청소년부터 대학생, 성인까지 각 사찰 연희단은 형형색색의 의상과 도구를 앞세워 불자들의 환희를 이끌어냈다. 특히 어린이 율동단은 찬불동요 '부처님이 좋아요'에 맞춰 아기자기한 율동을 선보였다.

화합 · 평화 실천 주체로

연등법회서는 모든 생명의 이고득락을 강조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불제자들이 화합과 평화를 실천하는 주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은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이라는 봉축표어를 정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며 "내 마음가짐을 소중히 하며 스스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을 잘 가꾸고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부처님 탄신을 찬탄하는 〈붓다차리타〉를 봉독했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약자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발원문을 낭독했다.

연등법회서는 4.27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계의 평화기원메시지도 발표됐다. 불교계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이 대표 낭독한 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들이 밝히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세상에 평화와 화합의 밝고 따뜻한 기운이 넘치길 기원한다.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童心 가득한 연등행렬

10만 연등 물결과 40만 인파가 서울 종로를 장엄한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에서는 동심(童心)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등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에게는 희망과 즐거움을, 어른에게는 동심을 다시 선물했다.

이번 연등회에는 조계종 종립학교 은석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행렬단은 선두에 서서 태극초롱등 · 동자동녀등 · 별등 · 팔모등을 대중에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뚜루루 상어가족등'과 '라이언등'의 친근한 캐릭터등도 천진불의 미소와 어우러졌다. 특히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관사는 태극기등을 선보였으며, 진각종 소속 어린이들은 당시 의복을 입어 유관순 등 열사들의 모습을 재연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원오도량), 태국, 스리랑카(마하보디사),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서도 스님과 불자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불교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5월 5일 우정국로 일대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몰리며 거대한 놀이한마당으로 펼쳐졌다. 불교계에서는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을 테마로 청춘 · 어린이, 국제, NGO, 먹거리, 전통, 나눔의 6개 마당에 120여개 부스를 설치해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날 전통문화마당서는 총 216명이 참가하는 외국인 연등만들기 대회와 외국인청년 자원봉사단 '연등회 글로벌 서포터즈' 플래시몹도 펼쳐져 환희를 더했다.

미국에서 온 브랜든 조브 씨는 "인사동을 방문하며 우연히 방문했는데, 다도 체험을 비롯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너무 좋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미륵사지 석탑 제막을 하고 있다.

미륵사지 석탑 20년만에 제 모습 찾다

4월 30일 준공식… 지역불교 법회도

일제강점기 당시 잘못된 보수로 인해 제 모습을 잃어버렸던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20년만에 본래 모습을 찾았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익산시, 금산사는 4월 30일 미륵사지 현장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공사 준공식 및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와 정재숙 문화재청장, 송하진 전북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은 반파된 상태로 6층 일부까지만 남아 있었고 일제강점기인 1915년, 무너진 부분에 콘크리트를 덧씌운 상태였다. 1998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가 노후됐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가 결정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석탑의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술조사연구와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시행해 2017년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했다. 완공된 석탑은 높이 14.5m, 너비 12.5m, 사용된 부재는 총 1,627개로 무게가 약 1,830톤에 이른다.

미륵사지 석탑은 최장기간 동안 체계적인 연구와 수리가 진행됐으며,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수정비 과정을 이행함으로써 석조문화재 수리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축사를 통해 "미륵사지는 불교경전에 입각해 목탑1기와 석탑2기를 일직선상에 배치한 세계최초의 가람"이라며 "백제 무왕이 미륵사지를 건축하듯이 복원하는 것이 제2의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미륵사지의 온전한 복원을 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복장 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됐다

문화재청 4월 30일 공고… '불복장의식보존회' 보유단체로

불상과 불화에 봉안하는 불교 의식인 '불복장 작법'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불복장 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세속적 가치의 불상과 불화가 '불복장 작법'이라는 불교 의식을 통해 종교적 가치가 부여되고 곧 예배 · 예경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불복장 작법 보유단체로는 '대한불교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불복장의식보존회)'이 인정됐다.

불복장의식보존회는 평생 불복장 작법 전승에 매진해 온 무관 · 경암 · 수진 · 승호 · 도성 스님이 중심이 돼 지난 2014년 설립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신규종목 지정과 보유단체 인정 등을 통해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